



2021

공개SW

페스티벌

ONLIN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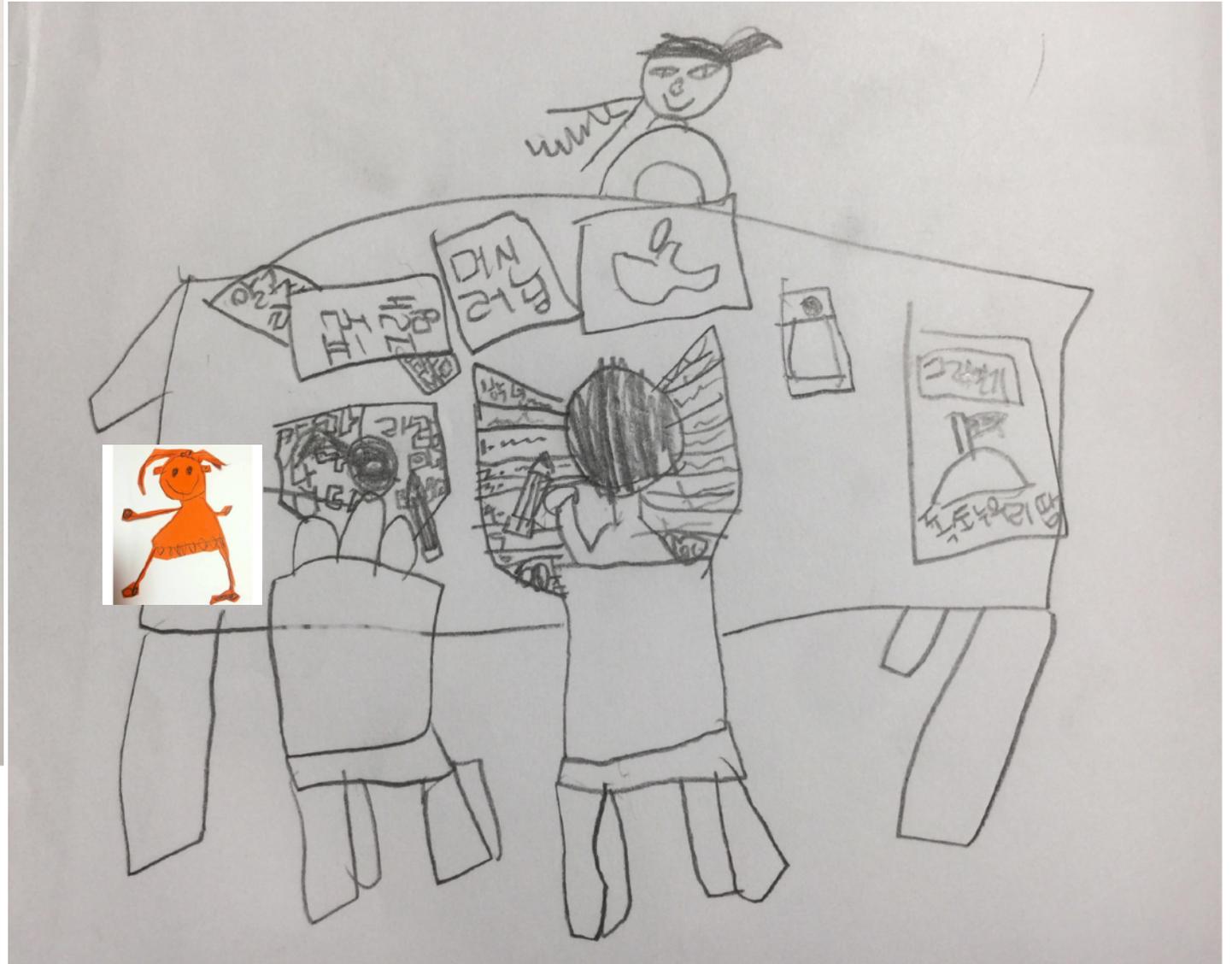
개발자와
함께
성장하는
오픈소스

육아와 함께 개발자로 성장하기

소속 : 오늘코드
이름 : 박조은



파이썬을 좋아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코드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코드 라는 파이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ouTube channel page for 'todaycode오늘코드'.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검색' and a microphone icon. Below the search bar is a banner image featuring hand-drawn sketches of buildings and signs with Korean text. The channel name '오늘코드' is displayed in a blue circle, followed by 'todaycode오늘코드' and '구독자 2만명'. Below the channel name are navigation tabs: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and '정보'.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생성된 재생목록' and displays a grid of video thumbnails. Each thumbnail includes a title, a view count, and a '모든 재생목록 보기' link.

Thumbnail Title	View Count	Action
날씨마루 파이썬 날씨 데이터 분석	10	모든 재생목록 보기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	64	모든 재생목록 보기
2020 캐글 설문조사 분석	13	모든 재생목록 보기
파이썬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현황 분석하기	12	모든 재생목록 보기
대한민국 인구통계 분석(위키)	11	모든 재생목록 보기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3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번째 고비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행히 패스

두 번째 고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 2년 그게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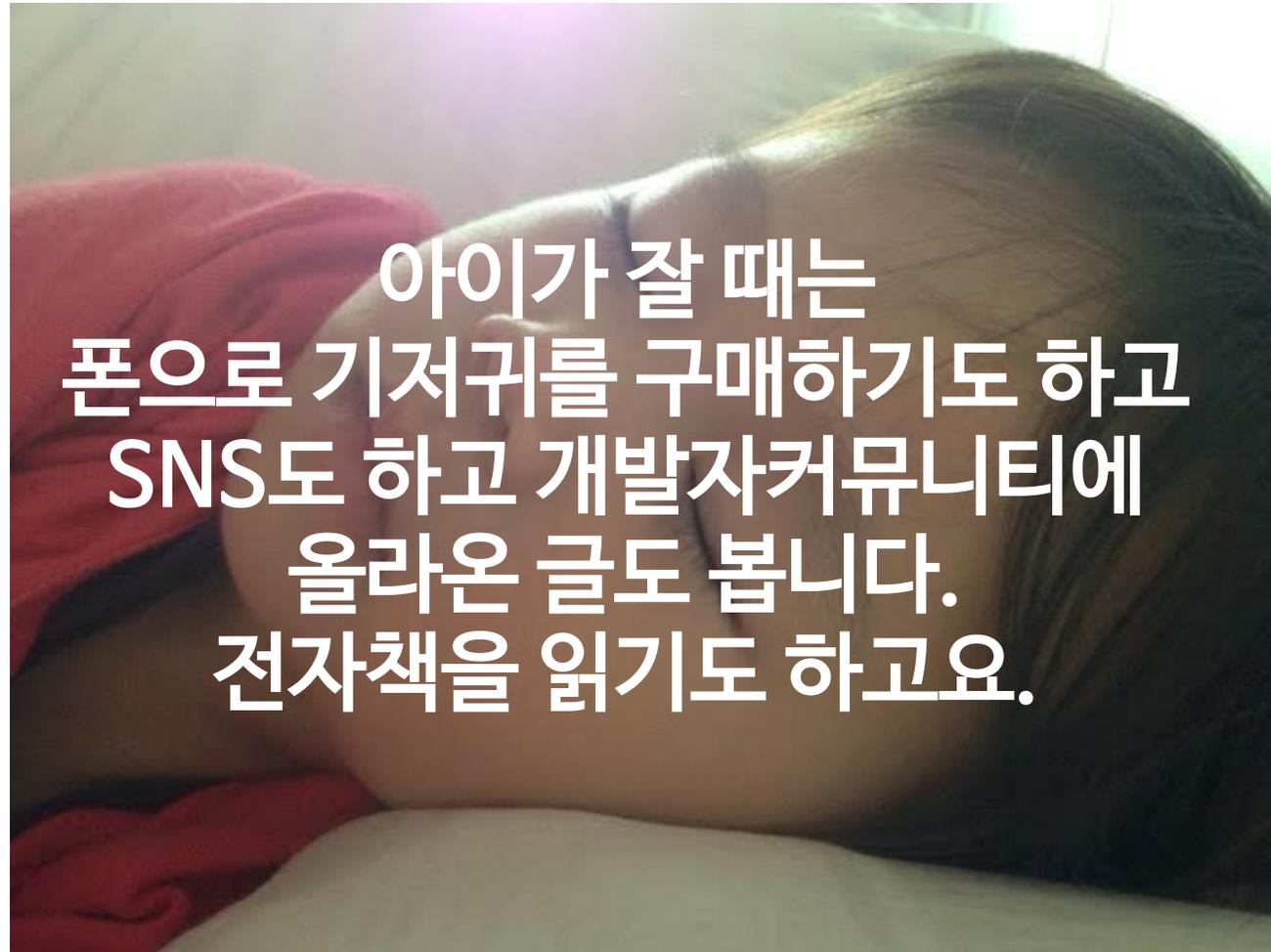
-당시 인사 담당자의 질문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육아와 함께 사회와 단절된 삶

뉴스 속 이야기를 보면
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이가 잘 때는
폰으로 기저귀를 구매하기도 하고
SNS도 하고 개발자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봅니다.
전자책을 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냥 잠들어
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애가 나를 재우는 건지
내가 애를 재우는 건지



어느새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
읽고 싶었던 책
만들고 싶었던 **토이 프로젝트**
컨퍼런스
세미나



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에 갔던 첫 번째 파이콘



두 번째 파이콘부터 2018년까지 자발적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희망했지만

나를 받아줄 팀은 없다고 합니다.

1350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육아휴직 기간동안 했던
프로젝트와 다양한 시도와 경험

스타트업으로 이직에 도움

NBT | 개발사 | 개발인

[개발인] 박조은 “육아휴직 2년, 개발자로 돌아와보니...”

< 공유 355 > 댓글 0

언어 선택 Google 번역에서 제공

지난 달 열린 파이썬 컨퍼런스 ‘파이콘2015’에서는 조금 색다른 발표가 있었다. 기술 사례나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어느 여자 개발자의 육아휴직 2년’이란 주제로 진행된 발표였다. 발표 자료의 조회수는 8천회가 넘었다. 왜 많은 참가들은 이 발표에 관심을 보였을까? 당시 발표를 진행했던 박조은 개발자에게 그 후기를 직접 물어보았다.

“육아휴직 2년, 네 가능합니다.”

박조은 개발자는 NBT의 서버 개발자이다. 동시에 두 아이를 둔 엄마다. 육아휴직 이야기는 NBT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경험담이다. 박조은 개발자의 아이가 1살, 4살이던 시절,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씩 쓸 수 있다. 이때 한 번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다. 박조은 개발자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당시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둘째 아이 육아휴직 기간을 붙여 약 2년여간 휴가를 냈다.

“당시에 1천여명 규모인 모바일게임 회사에 다녔어요. 이전 회사는 복지제도는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2년 정도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니 인사담당자가 ‘그게 가능하냐’라고 되물어보더라고요. 나쁜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정말로 몰라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



이런 발표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육아휴직

하지만 아직까지도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개발자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배움
저희 아이는 엄마를 그릴때면 티셔츠에 꼭 파이콘 로고를 그립니다.

파이콘 한국은 모든 참가자를 포용합니다

파이콘 한국 행동 강령(이하 행동 강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파이썬 커뮤니티를 위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파이콘 한국은:

-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지향합니다.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향합니다.
-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지역,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학력, 지식 수준, 외모, 장애, 질병, 음식 선호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컨퍼런스를 지향합니다.
-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독려합니다.

모든 참가자를 포용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파이콘 한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사회와 커뮤니티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존중하고 포용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배운것
태도 배려 존중

당신이 사용하는 표현들에 항상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전문 용어 금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 할 만한 표현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쉬운건데" 라던가 "간단히"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배우는 입장에서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어려운 것 일 수가 있습니다.

놀란 반응 하지 않기

참석자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때 놀란 반응을 하지 마세요. Django Girls에서 (기술적인 것이든)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만 한 것입니다.

<https://gist.github.com/jinpark/d4ec4b447a00081aa0fd>

Subtle-ism 금지

Subtle-ism은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며 다른 사람의 기분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 subtle-ism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gist.github.com/jinpark/d4ec4b447a00081aa0fd>

주변의 좋은 동료들 통해
꾸준히 배우고 학습

세 번째 고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instiz.net/pt/7023206

회원가입 이슈 일상 연예 뷰티 장터 픽션 공부 일정 iChart 게임

일단 나는 초1 담임 n년차 한 교사임

대개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할 때 직장을 많이 그만 두지만, 그땐 순한 맛이고 진짜 매운맛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찾아온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그 매운맛은 한층 더 강해 졌음

낳아만 놓으면 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육아와 교육 현장에 대한 얘기를 써보고 싶고,

<https://www.instiz.net/pt/7023206>

일과 육아 모두 열등감을 느끼는 워킹맘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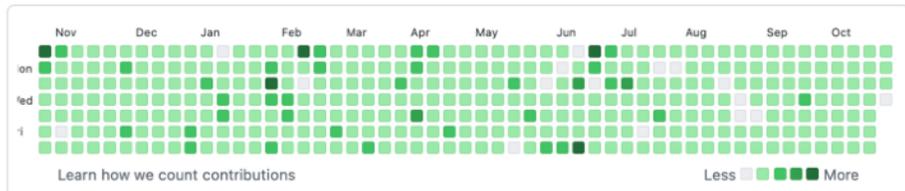
전업으로 육아를 하면
또 다른 사회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에서
아이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로

처음에는 **일년 정도만** 육아에 집중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불안 다시 일할 수 있을까?

407 contributions in the last yea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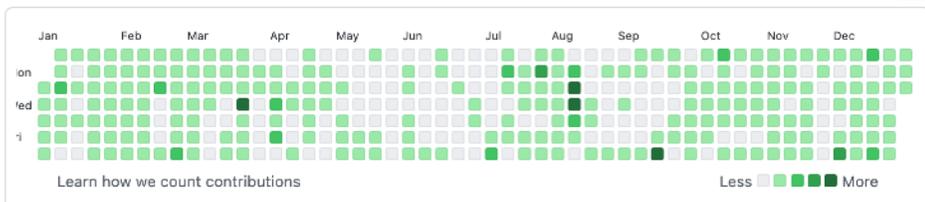
2020

2019

2018

2017

340 contributions in 2019



2021

2020

2019

2018

2017

210 contributions in 2017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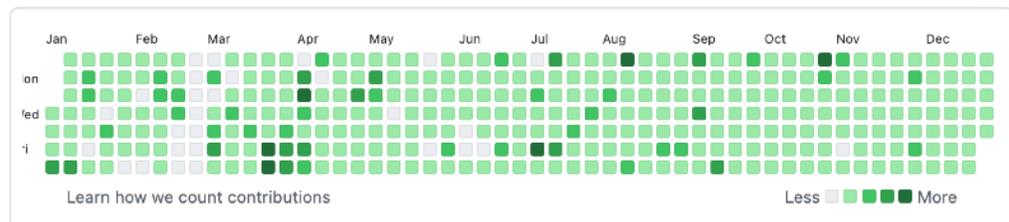
2020

2019

2018

2017

416 contributions in 2020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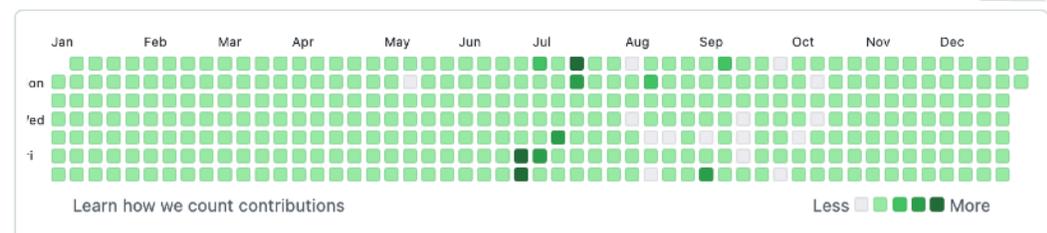
2020

2019

2018

2017

577 contributions in 2018



2021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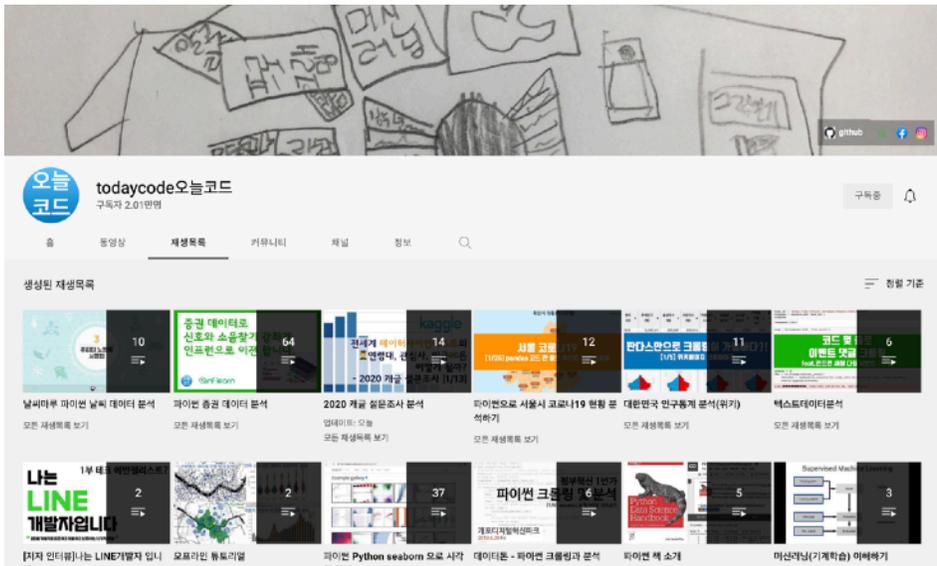
2019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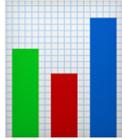
2017

**별거 아닌 내용을
꾸준히 커밋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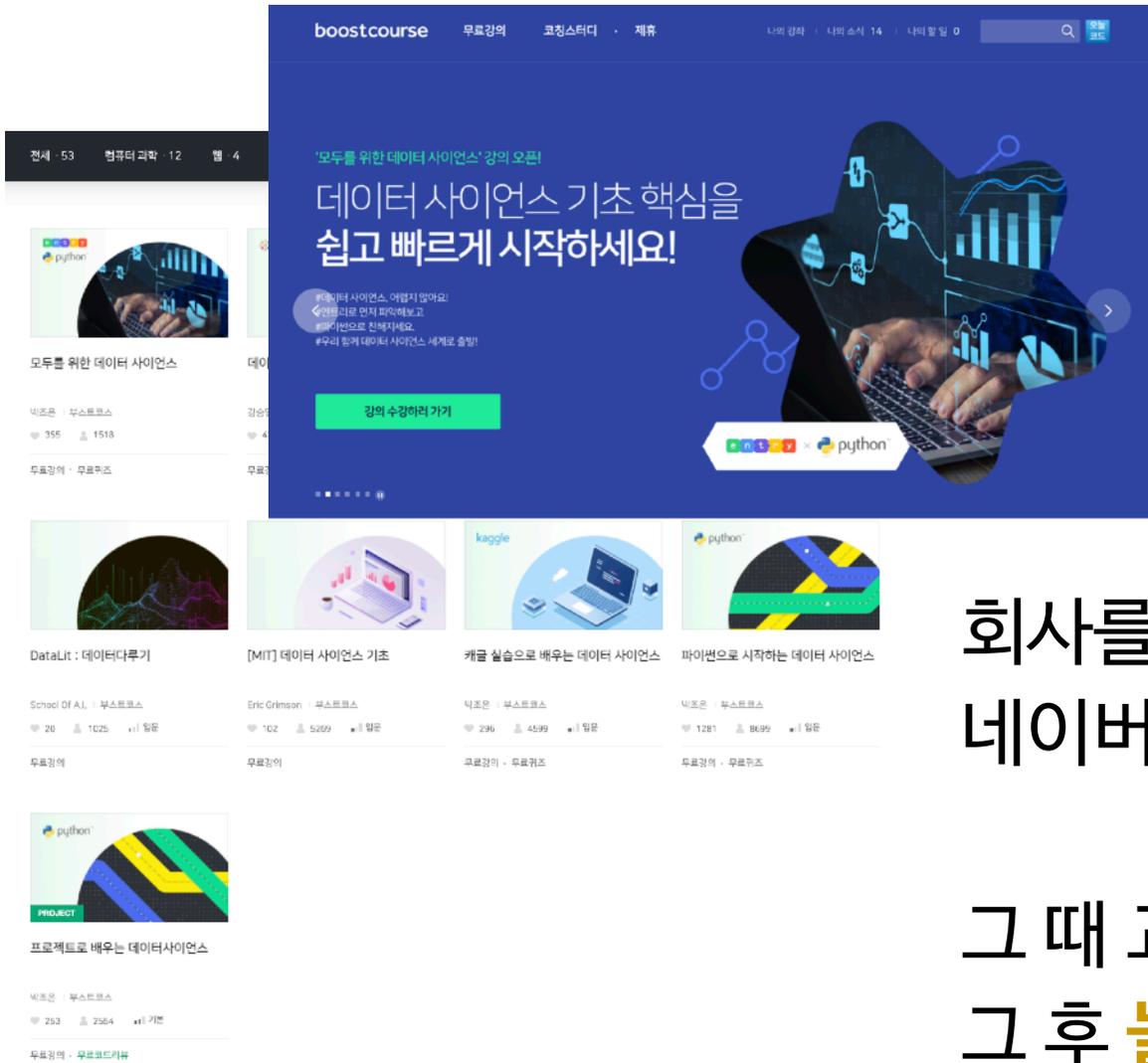
피드백이 없으니 재미가 없음
벽보고 얘기한다는 느낌으로
유튜브 월슨🏐을 만남

구독자가 없어도 

조회수가 낮아도 

수익이 없어도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했던 일은
네이버 커넥트 재단 **부스트코스의 코드리뷰**

그 때 교수자 분들이 엄청 부러웠는데
그 후 **놀랍게도 강좌 4개를 제작하게 됨**



온오프라인 강의





다양한 도메인의 기업에서 교육과 협업



'현실적' 육아로 직업 잃은 10년차 개발자, 눈 돌리니 이렇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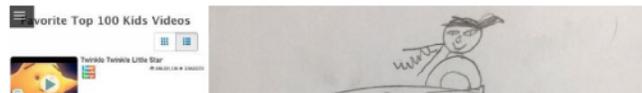
10,885 원유 • 2019. 09. 03.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비전공자 역시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을 배우며 이직을 노리고 있다. 물론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10여년간 개발자로 근무하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눈을 돌린 이가 있다. 인프런의 지식 공유자 박조은 강사를 만났다.

육아에 지쳐 찾은 취미 생활이 직업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하여 수도 없는 아근을 겪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근에서 벗어나긴 힘들었다. 일과 육아를 병행했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일하는 엄마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사회가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았죠." 결국 그녀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2년의 육아 휴직을 택했다.



마소 사러가기 마소 소식 큐레이션 인터뷰 마소팀 필드 밋업&행사



“모두가 데이터에 친숙해지는 날이 오길”...오늘코드 박조은

By 김예림 기자 | 2019년 10월 7일

과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내는 일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기업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면서, 각종 직업군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요구한다. 겉치만 알찬 콘텐츠로 사람들이 엑셀을 쓰듯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다. 10년동안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박조은님을 만났다.



유튜브 채널 <오늘코드>를 운영하시는 박조은님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1일 1커밋을 하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모아 만든 영상을 올리려고 유튜브 채널 <오늘코드>를 만들었어요”



김병욱님의 게시물



박조은

우와 넘 멋집니다. 축하드려요! 🎉

5일 좋아요 답글 달기



김병욱

작성자 🖐️

박조은 ㅎㅎ 선생님 자주 연락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잘 배워서 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4일 최고예요 답글 달기



박조은

김병욱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책 홍보할게요 😊

4일 좋아요 답글 달기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년만 육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창업까지





오늘코드라는
데이터 및 콘텐츠 제작 회사를 창업하고
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훌륭한 동료 분들
위로와 격려를 해준 분들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 논하기에는 충분히 살지 못했지만 인생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는 나이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잘사는 법,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인생을 10이라고 봤을 때, 잘 사는 기간은 고작 2또는 3이고 1도 채 안 될 때가 더 많다.**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좌절하거나, 좌절을 딛고 겨우 일어서거나, 그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해 웅크려 있거나,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다. 하지만 오직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젖을 때의 얼굴' 앞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치거나 부정하는게 다다.



하지만 큰곰 대장은 그러지 않는다.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이지만 졌다는 결과 역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사실을 창피해 하거나 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이긴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많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이 삶이라는 걸 큰곰 대장은 알려주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졌을 때의 얼굴’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앞으로도 **오픈소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나누고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